

ECONOMY

2025년 7월 1일 화요일

훌쩍한 지갑... 2박 3일 국내 미니여행 대세



한전, 제3기 '청청 Auditor' 발대 불합리 제도 발굴·청렴정책 홍보

한국전력은 30일 나주 본사에서 제3기 'KEPCO 청(년)청(림) Auditor(청청 Auditor)'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청 Auditor는 대학생과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한전의 불합리한 제도나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청렴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활동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5개팀 12명이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팀별 소개, 활동계획 공유, 운영 가이드라인 설명이 진행됐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젊고 신선한 시각으로 적극적이고 확장된 청렴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한전의 불합리한 제도나 개선점을 가감 없이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청 Auditor들은 매월 반부패 제도개선 제안과 청렴정책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연말에는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대한상의,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조사

광주 43만원·전남 39만원 전국 평균 54만원 밑돌아 전라권 여행지 선호 20%

광주·전남지역 직장인 1인당 올 여름 평균 휴가비는 얼마일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에 나섰는데 광주는 42만9000원, 전남은 39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54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3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광주의 직장인들은 올 여름 휴가비로 1인당 42만9000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비는 평균 39만3000원이다. 17개 시·도 중 광주는 15위, 전남은 맨 하위다. 특히 지역 간 휴가비 격차가 뚜렷했다. 서울지역 직장인의 경우 1인당 지출계획이 77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

주(64만7000원), 전북(60만원), 강원(55만원) 등 순이다.

전국 평균 여름 휴가비는 53만5000원이다. 지난해(48만9000원)와 견줘 9.4%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인당 평균 지출(66만6000원)이 가장 높았고, 20대(52만7000원), 40대(49만4000원), 50대(44만6000원) 등 순서였다.

또 지난해 휴가비와 관련, '더 많이 쓴다'는 응답은 32.2%, '적게 쓴다'는 응답은 26.8%로 나타났다. 지출을 늘릴 항목 1위는 '식비'(74.8%)였고, '숙소비'(58.1%), '교통비'(31.0%) 순이었다.

또 직장인 10명 중 8명(81.6%)은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고,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일정은 '2박 3일'이 38.9%로 가장 많았다. 3박 4일(22.7%), 1박 2일(21.3%)이 뒤를 이었다. 짧지만 알찬 '미니휴가'가 대체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호 여행지에서 전라권 선호도는 20%의 응답을 보였다. 강원권이 34.9%로 가장 인기였고, 경상권 27.9%, 제주권 22.4%를 각 기록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50.9%)과 동남아(45.4%)를 선택했다. 휴가 활동에 대해서는 절반(49.3%)이 '휴식·자연 풍경 감상'을 꼽았고, 이어 '맛집 탐방'(21.0%), '관광'(20.2%)이 뒤를 이었다. 액티비티(8.3%)보다는 '쉬고 먹

는' 콘텐츠가 강세를 보이는 셈이다. 기대 효과 역시 '스트레스 해소'(38.7%)와 '추억 만들기'(37.5%)가 주를 이뤘다.

여름휴가시 희망하는 지원책으로는 '숙박권 할인'(50.8%)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 '교통비 할인(KTX 등)'(35.8%)과 같은 실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제감형' 혜택이 상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지역사랑상품권 등 실질 지원 정책을 통해 휴가철 소비를 내수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aT, 무 7500t 선제 구매...전년비 1.5배 ↑

여름철 수급불안 대비... 전국 단위 공급망도 가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여름철 무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무 7500t을 선제 구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구매량(4500t)보다 1.5배 늘어난 물량으로, 최근 10년간 추진된 봄·여름무 수급 안정 대책 중 최대 규모다.

무 가격은 현재 평년 대비 80~110%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여름철인 7~9월에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aT는 조기 물량 확보

를 통해 가격 급등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추와 무의 도매시장 출하를 기존 가락시장 중심에서 전국 주요 도매시장으로 확대해 지역 간 가격 격차를 줄이고, 시장 전체의 안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전국 공급망을 통한 적기 방출로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은 30일 광주은행 영업부에서 대한양궁협회 장영술 부회장과 2020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TenTen양궁적금' 기금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함께 응원해요”

장영술 양궁협회 부회장·안산 선수 광주은행 'TenTen양궁적금' 가입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30일 광주은행 영업부에서 대한양궁협회 장영술 부회장과 2020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TenTen양궁적금' 기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025광주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부회장과 안 선수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 적금을 가입하면서 광주은행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TenTen양궁적금은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연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광주은행 TenTen양궁단 선수의 경기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60%p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2025광주방문의 해'를 기념해 광주 주요 관광장 방문 위치인증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최고 연 0.7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2025년은 광주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해가 될 것”이라며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며, 광주의 문화·관광·스포츠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N-NEXUS

N넥서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에이치에의 IT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NHNETWORKS

엔에이치네트웍스(주)

연구 & 개발 통합영상처리, 지능형 영상감시 솔루션, 보안영상 솔루션

제조 & 제작 주·장비 단속 및 CCTV 시스템

ESS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및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형상설치, 어린이 안전 용품 제조

설계 & 지원 유·무선망, 전화망, 서버시스템, 영상관리, 보안·지능형영상·영상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 관리 ICT 장비,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공 & 설치 정보통신망, 서버시스템, 서버, 광학 ICT 분야 설계, ITS 설계, 영상처리 시스템, 보안영상시스템

TEL 062-719-1080~2



전남 화순의 농주고 학생들이 금호타이어에 광주공장 화재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화순 농주고, 금호타이어에 화재 피해복구 성금 학생들 자발적 모금...따뜻한 위로 담은 손편지도

금호타이어는 전남 화순의 농주고 학생들이 광주공장 화재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을 보내 왔다고 30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이후 자발적 모금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조성한 기금과 손편지를 금호타이어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이겨내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뤄지고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고 위로를 전했다.

성태모 교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학생들이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경험한 교육적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화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농주고 학생들의 따뜻한 나눔은 금호타이어 임직원 모두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며 “학생들의 귀한 정성과 응원을 소중히 간직하며 하루빨리 공장을 복구하고 지역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

삼성비스포크 AI 콤보 2년 연속 최고 보안등급

삼성전자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가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즈 주관 사물인터넷(IoT)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에 이어 올해 신제품도 2년 연속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으며 강력한 보안 성능을 인정받았다.

5단계 중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는 악성 소프트웨어 변조 탐지, 불법 접근 시도 방지,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 등 총 33개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국내 유일·최대 건조 용량을 갖춘 일체형 세탁건조기로, 터치스크린과 음성비서 빅스비를 탑재해 편리한 AI 홈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AI 기능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보안 솔루션인 Knox(노क्स)를 비스포크 AI 가전에 적용했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로 연결된 기기들이 상호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노스 매트릭스(Knox Matrix)'를 와이파이기능이 탑재된 모든 가전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